



개관 페스티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개관 페스티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015년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아시아는 전통이 어우러지는 역동적인 변화의 장이다. 다차원적인 개념으로서의 '아시아'의 의미는 끊임없이 바뀐다. 그것은 스스로를 수정하고 재정의하며 재창출하는 유기체이다. 스스로에 도전하는 '사유의 방식'이랄까? '아시아'는 창의성을 위한 하나의 수행적이고 유기적인 프레임이기도 하다.

2015년에 개관하게 될 예술극장은 '예술'을 고민하고, '무대'를 질문하며, '오늘'을 사유한다. 예술극장은 이러한 성찰과 담론을 지지하고 창출한다. 제작, 공동제작, 초청 및 레지던시 등이 그 방식이다. 그 무대는 '아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이며, 동시에 일상적 삶이다.

예술극장은 광주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한 부분이다. 예술극장의 비전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교류의 장이 되는 것이다. '오늘'을 이야기하는 가장 진취적인 작품의 기획과 제작 그리고 순환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허브가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우리나라의 예술 영역에서 구상된 가장 큰 꿈일 것이다.

아시아의 예술이란 무엇일까?

'동시대' 예술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포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왜 이 질문들이 필요할까?

예술극장은 이런 질문들을 촉발시키고 무대화한다. 이를 위해서 예술극장은 장르와 학풍, 관점과 문화의 경계들을 횡단한다. 차이와 다양성을 지지하고 만들어간다. 그것은 곧 삶의 방식,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의 확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술극장이 '예술'을 새롭게 정의 내리는 작업은 하나의 완결을 향한 절차가 아니라 꾸준히 갱신되는 대화의 장이 될 것이다. 그것은 삶이라는 극장을 새롭게 이해하고 창출하는 과정일 것이다.

개관 페스티벌

오늘날 '아시아'는 어떤 의미인가? 오늘에 대해 이야기하는 관점과 태도는 무엇인가?

예술극장은 이 질문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탐색하는 목소리들을 한곳에 모은다. 이로써 국가와 문화를 초월한 소통을 도모한다. 개관 페스티벌은 이와 같은 예술극장의 비전과 방향성을 집약하는 축제다. 페스티벌을 통해 '아시아 동시대 예술'을 새롭게 정의 내리는 작업은 하나의 완결을 향한 절차가 아니라 꾸준히 갱신되는 대화의 장이 될 것이다.

2015년 9월 4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되는 개관 페스티벌에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33편의 작품이 소개된다. 여기에는 예술극장에서 제작 혹은 공동 제작한 12편의 아시아 작품들이 포함된다. 또한 아시아라는 지형적, 정치적 경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국제 페스티벌을 지향한다.

개관 페스티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사카구치 교헤 제로 리:퍼블릭	p.6
차이밍량	
당나라 승려	8
떠돌이개 in 광주	10
차이밍량의 영화관	12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찬란함의 무덤	14
열병의 방	16
마크 테 발링회담	18
리카르도 바르티스 바보기계	20
로메오 카스텔루치 봄의 제전	22
아라야 라스잠리안숙 움마유 시	24
마를레네 몬테이로 프레이타스 상아와 삶에 관하여—동상도 고통 받는다	26
김지선 다음 신의 클라이막스	28
카와구치 타카오 오노 카즈오에 관하여	30
찬드랄레카 신체	32
중국국립경극원 흥흥기	34
자오량 동풍과 서풍 + 검은 얼굴, 하얀 얼굴	35
베헤모스 + 고소	36
브렛 베일리 맥베스	38
B 전시	40
김성환/데이비드 마이클 디그레고리오 피나는 노력으로 한	42
야마시타 잔 대행진	44
라야 마틴 그의 죽음은 의문스럽다	46
아다치 마사오 단식광대	48
수웬치 지도 바깥	50
아자데 샤미리 다마스쿠스	52

탈가트 바탈로프 우즈벡	54
이이남/서현석 이이남: 세컨드 에디션	56
와엘 샤키 카바레 십자군—카르발라의 비밀	58
호추니엔 만 마리의 호랑이	60
오카다 토시키 야구에 축복을	62
콘스탄틴 보고몰로프 이상적인 남편	64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관람자들을 바라보기	66
클로드 레지 내면	68
팀 에첼스 밤이 낮이 된다는 것	70

개관 페스티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사카구치 교헤 구마모토

‘집 짓지 않는 건축가’ 사카구치 교헤는 삶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대신, 삶을 구성하는 기반적 요소들 하나하나에 이의를 제기한다. <제로 리:퍼블릭>은 노동, 자본, 공간의 관계를 재편성해보는 ‘국가놀이’다.

사카구치가 짚어낸 ‘건축가’로서의 임무는 삶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 진정 무엇인가를 재고하는 것이다. 시스템이 만들어놓은 ‘돈’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고, 최소한의 개인적 공간, 즉 ‘집’을 마련하기 위해 원치 않는 노동을 평생 해야 하며, 빈 집이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 집은 지어지는데다가 가격도 상승하며, 땅이 본래 기능이 아닌 재화의 역할을 하고, 생활에 필요한 전기는 충분히 자급할 수 있는데 그를 핑계로 원전이 돌아가는, 이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한 ‘현실’에 대한 이의제기이다.

<제로 리:퍼블릭>은 국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삶과 사유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며, 곧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동적인 모색이기도 하다. 그 경로에서 삶과 예술은 구분되지 않는다.

<제로 리:퍼블릭>을 통해 사카구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성’을 실험한다. 자본주의와 정당정치에 다양한 비가시적인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급진적이면서도 생산적인 삶의 형태.

광주 동구
9.4 금-9.21 월
무료 입장

Concept and direction: Sakaguchi
Kyohei • executive producer:
Jooyoung Koh • local coordinator:
Takhyun Kim

Commissioned and produced by
Asia Culture Center Theater



ZERO Re:public
제로 리:퍼블릭
9월 4-21일

차이밍량 타이베이



극장 1
9.4 금, 9.5 토, 9.6 일: 7pm
110분
50,000원

아티스트 토크
9.6 일: 공연 후

Director: Tsai Ming-liang • cast: Lee Kang-sheng • painter: Kao Jun-honn • costume design: Wang Chia-hui • choreography: Cheng Tsung-lung • assistant director: Chang Jhong-yuan • rehearsal assistant: Hung Yi-chun, Ho Mu-yun, Gwan sin, Hsu Ching-lo • technical director: Yeh Sheng-yi • technician: Chen Sheng-hao • still photographer: Lin Meng-shan, Chen Chang-Chih, Chang Jhong-yuan • recording source: Chinese Music Archive, Music Department,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 administration manager: Wang Yun-lin • production executive: Hsu Li-hsia • tour manager: Wu Ko-yun

Production: Home Green Films • co-production: Asia Culture Center Theater, Kunstenfestivaldesarts, Wiener Festwochen, Taipei Arts Festival • technical coordination: Cheerly Co., Ltd. • sponsorship: Solar Plus Company • special thanks to Chang Chih-yu, Lin Ching-ru, Liu Tz-jiun, Jade Y. Chen

영화로부터 설치미술로 작품의 경계를 넓혀온 차이밍량은 이번 무대연출에서 당나라의 승려 현장(玄奘)의 행보를 좇는다. 인생을 덧없이 함축하는 협소한 무대 공간에서 현장을 연기하는 이강생은 인간의 가장 단순한 행위를 전람한다. 아니 그저 행한다.

승려가 인생에 상응하는 잠에 침잠해 있는 동안, 화가는 그가 잠든 바닥을 두려움으로 검게 채운다. 내면과 외부의 경계에 빠진 승려의 존재감은 연극과 실재의 가는 선을 걷는다. 잠에서 깨어나지만 새로워지는 것은 없다. 자유와 허무, 쓸쓸함과 의지가 중첩된다. 그것은 느린 시간 속에서만 일어나는 수행의 과정이다.

“느린 속도는 시간을 더하고, 그것을 전개시킨다. 우리가 천천히 먹고 마실 때 먹는다는 행위, 마신다는 행위를 실제 경험할 수 있다. 일종의 저항성도 느린 속도를 통해서 도출될 수 있다. 세계는 점점 더 속도를 요구하고 그것이 현대적 삶의 큰 제약이 되고 있다. 나의 목표는 이러한 모든 제약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느린 무대는 속세의 번잡함을 초탈하기 위한 풍경이다. 그것은 또한 인생을 돌아보는 차이밍량과 이강생의 자화상일까?

The Monk from Tang Dynasty

당나라 승려
9월 4일 5일 6일

친구 집에서 밤새워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들던 기억은 누구나 간직하고 있을 직하다. 차이밍량 감독은 자신의 어린 시절의 추억을 재방문하며 방문객들에게 '야숙 극장'을 제안한다. 2013년 베니스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작인 <떠돌이개>(2013)는 인간 광고판으로 일하는 한 아버지의 고독을 차이밍량 특유의 느림과 응시의 미학으로 담고 있다. 영화의 테이크 장면들은 도시의 공유된 기억 속으로 야숙객들을 안내한다. 이는 영화가 관객을 만나는 방식에 대한 차이밍량 감독의 대안적 제안이기도 하다.

5·18민주평화기념관
컨퍼런스홀
9.5 토: 10pm-10am
(야숙 극장)
10,000원

극장 오픈홀
9.6 일-9.9 수: 4pm-8pm
무료 입장

Curator: Tsai Ming-liang • exhibition
designers: Tsai Ming-liang, Lee
Tian-jue • production: Home Green
Films • commissioned and organized
by Asia Culture Center Theater

차이밍량 타이베이



Stray Dogs in Gwangju

떠돌이개 in 광주
9월 5일 6일 7일 8일 9일

차이밍량 타이베이

어린 차이밍량은 외할머니의 손을 잡고 영화관에 처음 들어섰다.
영화감독으로 자라난 성인 차이밍량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기 위해
영화관에 들어선다. 시간여행이 가능한 자신만의 시공간. 영화가 꿈을
꾸는 걸까, 꿈이 영화를 꾸는 걸까.

광주극장
9.11 금, 9.12 토, 9.13 일:
2pm-6pm
23분 루프
무료 입장

Director: Tsai Ming-liang • cast: Lee Kang-sheng, Chay Yiok-khuan, Lee Yi-cheng, Perilly Chua, Norman Atun
• executive producer: Leonard Tee • director of photography: Liao Pen-jung • costume designer: Wang Chia-hui • recordist: Tang Hsiang-chu • still photographer: Chong Juang-bao • production: Home Green Films



It's a Dream

차이밍량의 영화관
9월 11일 12일 13일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치앙마이

이 시대 가장 주목받는 영화인 아피차퐁 위라세타쿤의 작품연보는 자신의 무의식에 대한 점점 깊어지는 여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전쟁과 사랑, 꿈과 역사가 어우러지는 정교한 미로로 펼쳐진다. 깊어지는 수면처럼.

태국 동북부에 있는 유적지 콩카옌은 아피차퐁 위라세타쿤의 고향이자, 2015년에 그가 펼치는 새로운 영화적 상상의 현장이다. 수면병에 빠진 병사와 그를 간호하는 주부가 만나고, 그 충돌은 여러 층위의 현실을 빚어내는 제식적 단초가 된다. 위라세타쿤의 부모가 의사로 근무했던 병원, 끝없이 질병에 관한 영화들을 보여줬던 학교 등 사적인 기억 속의 장소들은 그가 꾸는 영화라는 꿈속에서 새로운 현실들을 직조해낸다. 그리고 두 상상적 인물들은 그 속에 숨는다.

다층적 현실로 이루어지는 영화적 미로는 작가 자신의 무의식적 거울이며 동시에 태국의 역사적 단상이기도 하다. 몽상과 정치는 서로를 횡단하고 투영한다. 두 남녀가 서로의 잠 속에서 새로운 현실을 발견하듯.

“나는 이 영화를 열병에 걸린 태국에 대한 반추로서 만든다. 이는 또한 초등학교, 병원, 도서관, 호수 등 기생충처럼 나를 점령한 기억 속의 장소들에 대한 사적인 초상이기도 하다. 영화 속의 잠자는 사람들과 더불어 나는 현실의 질병을 차단하고 영속의 꿈속에 숨는다.”

광주극장
9.7 월, 9.8 화, 9.9 수: 8pm
120분
8,000원

아티스트 토크
9.9 수: 상영 후

Written and directed by
Apichatpong Weerasethakul • pro-
ducers: Apichatpong
Weerasethakul, Keith Griffiths,
Simon Field, Charles de Meaux,
Michael Weber, Hans
Geissendoerfer • cast: Jenjira
Pongpas Widner, Banlop Lomnoi,
Jarinpattri Rueangram • line pro-
ducer: Suchada Sirithanawuddhi •
cinematographer: Diego Garcia •
production designer: Akekarat
Homlaor • art director: Pichan
Muangdoung • costume: Phim
U-mari • sound design: Akritchalerm
Kalayanamitr • editor:
Lee Chatametikool

A Kick the Machine Films and
Illuminations Films Past Lives
Production in co-production with
Anna Sanders Films, The Match
Factory, GFF Geissendoerfer Film-
und Fernsehproduktion KG, ZDF/
Arte • Co-producers: Astro Shaw,
Asia Culture Center Theater, Detalle
Films, Louverture Films, Tordenfilm •
With the support of L'Aide aux
Cinéma du Monde, Sørfond, World
Cinema Fund, Hubert Bals Fund.



Cemetery of Splendour

찬란함의 무덤
9월 7일 8pm
9월 9일 8pm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치앙마이



“영화와 같은 평면적 매체를 통해 다층적인 구도를 만드는 것은 내게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형식, 즉 연극을 통해 이를 탐구할 수 있게 된 것은 기쁜 일이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발상은 극장의 관객들을 모종의 질병에 감염시키는 것이다.”

극장 2
9.4 금, 9.5 토, 9.6 일:
5pm, 8pm, 10pm
70분
50,000원

아티스트 토크
9.6 일: 공연 후

Written and directed by
Apichatpong Weerasethakul • cast:
Jenjira Pongpas Widner, Banlop
Lomnoi • cinematographer and edi-
tor: Apichatpong Weerasethakul •
lighting: Pornpan Arayaveerasid •
sound design: Akritchalerm
Kalayanamitr • 1st assistant director:
Sompot Chidgasornpongse • 2nd
assistant director: Yingsiwat
Yamolyong • finance: Parichart
Pu-Aree • post supervisor: Lee
Chatametikool • A Kick the Machine
Films and Asia Culture Center
Theater production

꿈과 역사의 경계지역에 영화적 상상을 불어넣어 온 아피차퐁 위라세타쿤의 첫 공연무대는 영화와 연극의 근원을 재구성한다. 바로 동굴이다. 동굴은 기억과 신체의 간극을 좁히는 제식적 시공간이다. 죽음과 잠이 중첩되는 경계구역은 곧 두 남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얹히는 혼재향이기도 하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왜 항상 병에 관한 영화들을 보여주는지 알 수 없었다. 우리는 Deng Jihyo, 구충증, 상피병, 말라리아와 같은 비참한 질병들의 모습에 노출되었다. 나는 그 영사실을 ‘열병의 방’이라고 불렀다.”

동굴의 연극적 장치, 아니 연극의 동굴 같은 장치 속에서 어둠과 빛, 과거와 현존, 정치와 몽상, 연극과 영화는 서로를 비추고 관통한다. 이는 또한 작가의 또 다른 신작 <찬란함의 무덤>의 대체적 서사이기도 하다. 병사와 주부는 서로의 꿈을 횡단하면서, 그리고 다른 작품과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서로를 그리고 자신 스스로를 발굴하고 은폐시킨다. <열병의 방> 속에서 그것은 곧 관객의 꿈이 되기도 할까?

Fever Room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9월 4일 5일 6일

예술극장 제작,
월드 프리미어

마크 테 쿨라를 부르

1955년 12월 28일, 말라야 반도 북부의 한 작은 학교 교실. 이를 동안 열린 '발링회담'은 1948년 대영제국이 말라야 공산당을 뿌리 뽑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가중되었던 혼란을 종식시키고 말라야 반도에 평화와 독립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계기였다.

마크 테는 1955년 발링회담의 녹취록을 재구성하여 당시 실제 발화자들과 같은 정치적 견해를 가진 오늘날 퍼포머-리서처들의 입을 통해 국가 형성에 관한 질문을 살펴본다. 당시 회담에서는 국가를 형성하는 다양한 비전이 논의되고 폐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 충성, 테러리즘, 화해, 희생, 독립 등 국가의 정체성을 이루는 개념적 근간의 의미는 끊임없이 수정되고 재조정된다. 이 공연에서 배우들이 각자 맡는 '역할'은 그 개념들처럼 모호하게 미끄러진다.

"기억의 뿌리에는 역사가 있다. [...] 향수에 젖어있는 대신 이 역사에 재접속하는 길을 찾아 보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공간에 대한 감각과 더불어 나와 잊혀진 시간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살아난다."



아틀리에 1
9.5 토: 3pm
9.7 월, 9.8 화: 6pm
120분
30,000원

아티스트 토크
9.8 화: 공연 후

Concept and director: Mark Teh •
creative producer: June Tan •
production design: Wong Tay Sy •
visual projection design: Fahmi
Reza, Imri Nasution • lighting design:
Syamsul Azhar • performers: Anne
James, Fahmi Fadzil, Faiq Syazwan
Kuhiri, Imri Nasution • stage man-
ager: Hoe Hui Ting

Commissioned by Asia Culture
Center Theater • produced by Five
Arts Centre • co-produced by Asia
Culture Center Theater, Performing
Arts Meeting in Yokohama

Baling

발링회담

9월 5일 7시 8일

퍼포머

리카르도 바르티스 부에노스아이레스

극장 0
9.4 금, 9.5 토, 9.6 일, 9.7 월:
8pm
75분
50,000원

아티스트 토크
9.7 월: 공연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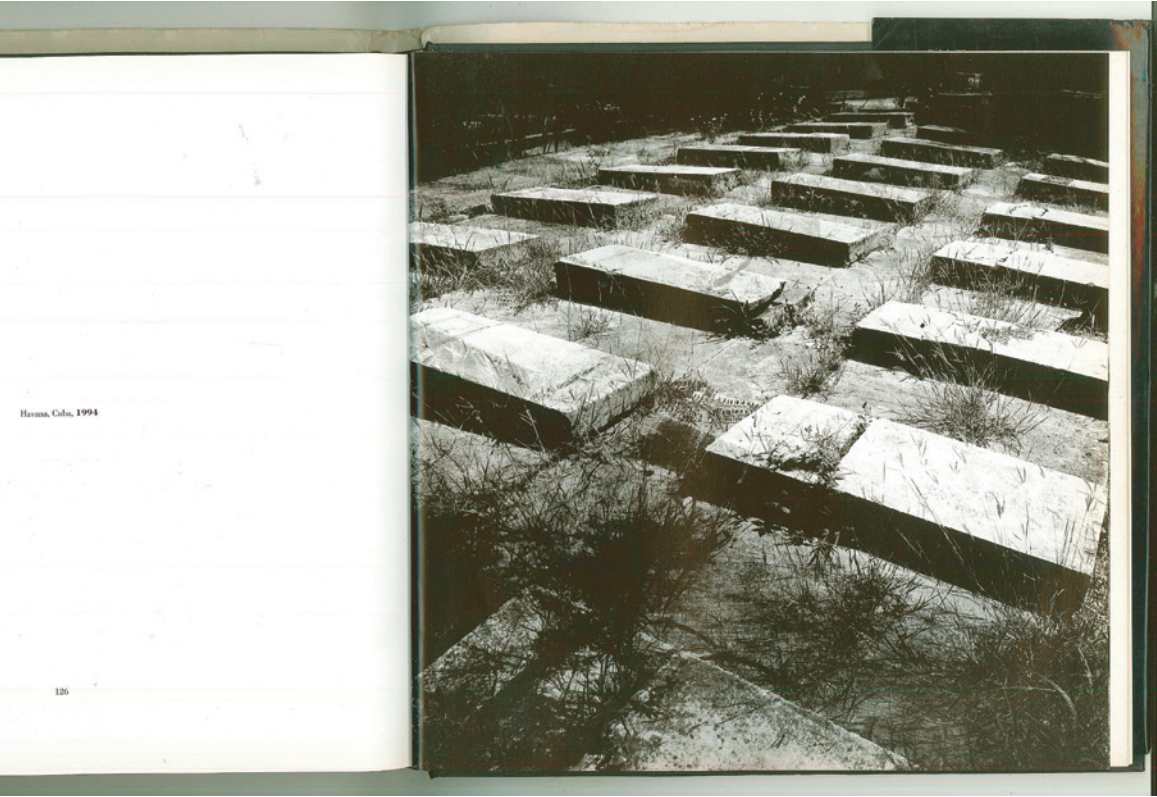
Actors: Fabián Carrasco, Facundo Cardosi, Gustavo Sacconi, Hernán Melazzi, Mariano Gonzalez, Matías Scarvaci, Martín Kahan, Nicolás Goldschmidt, Pablo Navarro, Darío Levy, Sebastián Mogordoy • actresses: Flor Dyszel, Dana Basso, Luciana Lamoglia, Lucía Rosso, Rosario Alfaro, Sol Titiunik • musical direction: Manuel Llosa • costume and stage maker: Paola Delgado • assistant: Francisco Alerino • director assistants: Clara Seckel, Mariano Saba • executive producer: Lorena Regueiro • dramaturgy and direction: Ricardo Bartís • international producer: Ignacio Fumero Ayo

리카르도 바르티스는 군사독재(1976-1983) 이후 아르헨티나 연극의 가장 중요한 연출가로 꼽힌다. 바르티스는 1986년 스포르티보 테아트랄을 설립하여 독특하면서도 시적인 연극 언어를 만들어냈다. 극단은 현재까지도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연출가와 배우를 배출해 내고 있어, 아르헨티나 연극계의 핵심적인 지표로 기능하고 있다.

〈바보기계〉는 전통적 연극, 재현 연극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판테온 극장과 맞닿아 있는 한 공동묘지에 유령들이 모여 있다. 이 실패한 배우들은 여기에서 〈햄릿〉 공연 준비에 몰두하며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인정을 받기 위해 인생역전을 꿈꾼다.

연극의 표피는 삶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햄릿〉은 위태로운 세상에 섬광과도 같은 질문을 던진다. 배우의 조건은 무엇인가? 텍스트의 '원형'이란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시간은 무엇인가? 우리가 관료주의적으로 반복을 거듭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보기계〉는 폐쇄를 앞둔 광주여고 체육관에서 한 편의 연극적 게임을 선보인다. 하이너 뮐러의 〈햄릿기계〉(1977)가 배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성찰을 담았다면, 리카르도 바르티스의 〈바보기계〉는 연극, 진실, 그리고 신화에 대해 선명하면서도 아이러니한 시각을 제시한다.



The Idiotic Machine

바보기계
9월 4일 5일 6일 7일

로메오 카스텔루치 체세나

CGI 센터

9.5 토, 9.6 일, 9.7 월:

정오, 5:30pm

50분

50,000원

아티스트 토크

9.5 토: 마지막 공연 후

로메오 카스텔루치가 재해석하는 ‘봄의 제전’은 죽음과 현존의 기이한 경계를 물화시킨다. 생명의 파격을 형상화하는 것은 소 75마리의 분쇄된 현존감이다. ‘영혼’이라고 해야 할까. 그리스 출신의 지휘자 테오도르 쿠렌치스(Teodor Currentzis)가 이끄는 뮤지카테르나(MusicAeterna) 오케스트라는 스트라빈스키가 구상한 봄의 생명력에 비언어적 파격을 불어넣는다.

다분히 ‘추상적’이기도 한 동물적 집단 현현은 인간 문명의 잔혹함을 대변하고 고발한다. 기계미학과 동물성이 중첩된 과묵한 수사는 바닥에 축적되며 더욱 위협적으로 변한다. 그 파상적 역설을 ‘영혼’이라고 해야 할까. 언어는 곧 물질이다.

무대는 현전하는 비언어와 언어적인 현전을 서로 환원시키는 연금술의 장이다. 소시에타스 라파엘로 산치오에 있어서 현실은 모순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그것이 이미 모순과 결탁해 있기 때문에.

Concept and direction: Romeo Castellucci • sound: Scott Gibbons • artistic assistant: Silvia Costa • programming: Hubert Machnik; collaboration stage: Maroussia Vaes • collaboration lighting: Marco Giusti • recording: Music Aeterna • musical direction: Teodor Currentzis • technical production manager: Benjamin zur Heide • machine builder: Christian Schubert / L58 • collaboration research: Istvan Zimmermann • produced by Ruhrtriennale— Festival of the Arts • co-production with Manchester International Festival, Parc de la Villette Paris

The Rite of Spring

봄의 제전
9월 5일 6일 7일

아라야 라스잠리안숙 치앙마이



아라야 라스잠리안숙의 가장 주된 '작품'은 사체와의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다. 작품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라스잠리안숙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는 대화를 실험한다. 시체안치소의 정체 모를 사체들, 주인 없이 버려져 죽음을 맞은 동물 앞에서 책을 읽고 강의를 한다.

그것은 외양과 형태를 초월하는 내면적인 것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라스잠리안숙이 말하는 '옴마유 시'는 한 생명의 내면을 가리킨다. 그가 창안한 이 단어는 사회에 의해서 오염되거나 언어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은 상태의 생명적 근원성을 함축하고 있다.

그가 광주에서 펼치는 작품은 광주시 동물보호소에서 주인 없이 죽음을 맞이한 동물들의 사체에서 '옴마유 시'의 가능성을 찾는 수행이다. 존재에 대한 진지한 묵상을 위해 라스잠리안숙은 삶과 죽음, 재현과 실재, 소통과 소통 불가능성의 간극으로 관객을 초대한다. 생명 없는 생명체는 우리에게 어떤 소통의 가능성을 제안할까?

복합 5관
9.5 토, 9.6 일: 2pm-8pm
9.7 월, 9.8 화: 4pm-8pm
무료 입장

아티스트 토크
9.8 화: 전시 종료 후

Conceived by Araya
Rasdjamreansook • art production:
mda dogs' house, Koreanimal

Commissioned and produced by
Asia Culture Center Theater

Choreography: Marlene Monteiro Freitas • performance: Marlene Monteiro Freitas, Andreas Merk, Betty Tchomanga, Lander Patrick, Cookie (percussion), Tomás Moital (percussion), Miguel Filipe (percussion) • light and space: Yannick Fouassier • music: Cookie (percussion), Tiago Cerqueira (edition and sound) • research: João Francisco Figueira, Marlene Monteiro Freitas

Production: P.O.R.K (Lisbon, PT) • distribution: Key Performance (Stockholm, SE) • coproduction: O Espaço do Tempo, Montemor-o-Novo (PT), Alkantara Festival, Lisbon (PT), Maria Matos Teatro Municipal, Lisbon (PT), Bomba Suicida, Lisbon (with the support of DGArtes, PT), CCN Rillieux-la-pape, direction Yuval Pick, Rillieux-la-pape (FR), Musée de la danse, Rennes (FR), Centre Pompidou, Paris (FR), Festival Montpellier Danse 2014, Montpellier (FR), ARCADJ, Paris (FR), le CDC—centre de développement chorégraphique de Toulouse/Midi-Pyrénées, Toulouse (FR), Théâtre National de Bordeaux en Aquitaine, Bordeaux (FR), Kunst-enfestivaldesarts, Bruxelles (BE), WP Zimmer, Antwerp (NL), NXTSTP (with the support of the EU Culture Programme) • with the support of: ACCCA—Companhia Clara Andermatt • acknowledgements: Staresgrime (PT), Dr. Ephraim Nold

이 유쾌한 듯하지만 건조하고 충충하기 그지없는 뮤지컬은 무용의 조건을 기이하게 역설하는 한 쌍의 모티브를 바탕으로 한다. 동상(銅像)과 무도회이다.

피그말리온과 오르페우스가 중첩된 액자 구성의 이야기는 죽음을 극복하는 욕망을 노래하고, 전복의 가능성을 운운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가둔 또 다른 이야기 속에서 버둥거린다. 자유를 꿈꾸는 무용수의 의지에 대한 은유랄까, 프레이타스의 과묵한 냉소에 따르자면, 그것은 “굳어버린 신체를 위한 무도회”이다. 자신의 조각에 생명을 불어넣은 피그말리온의 키스 대신 열리는 무도회. 움직일 수 없는 것과 움직임을 위한 것이 만드는 불가능한 조화는 안무 행위의 어떤 은폐된 차원을 집요하게 파헤친다.

알랭 르네와 크리스 마르케가 연출한 영화 <동상도 죽는다> (1953)를 염두에 둔 부제에 따르면, 굳어버린 신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움직이고자 하는 의지의 고통이다. 얼어붙은 기억 속의 신체적 자유.

광대의 과장과 시인의 절제가 기묘하게 배합된 몸짓들은 무미한 시간을 견뎌내면서 파격의 힘을 역설하기 시작한다. 아무런 지평도, 목적지도 보이지 않는 무심한 전복. 춤을 추어야 하는 내면의 부정형적이고 무조건적인 동기라고 해야 할까.

Of Ivory and Flesh – Statues Also Suffer

상아와 살에 관하여 — 동상도 고통을 받는다

9월 6일 7일



김지선 서울

게릴라 연론 집단인 '범아시아 국제회의'와 움직이지 않고 유묵하는 여행사 'anti.no.made'의 창립자 김지선은 <다음 신의 클라이막스>에서 끝없이 호명되어 조각나버린 수많은 감각들을 연극적 장치로 불러들인다.

흔들의자에 앉아 바라본 세계는 체험 없는 경험, 요구사항 없는 시위, 명분 없는 폭력으로 얹혀 있다. 플레이어는 역할연기를 수행하며 세계라는 가장 거대한 모순을 직면하고 그것의 파기를 두고 고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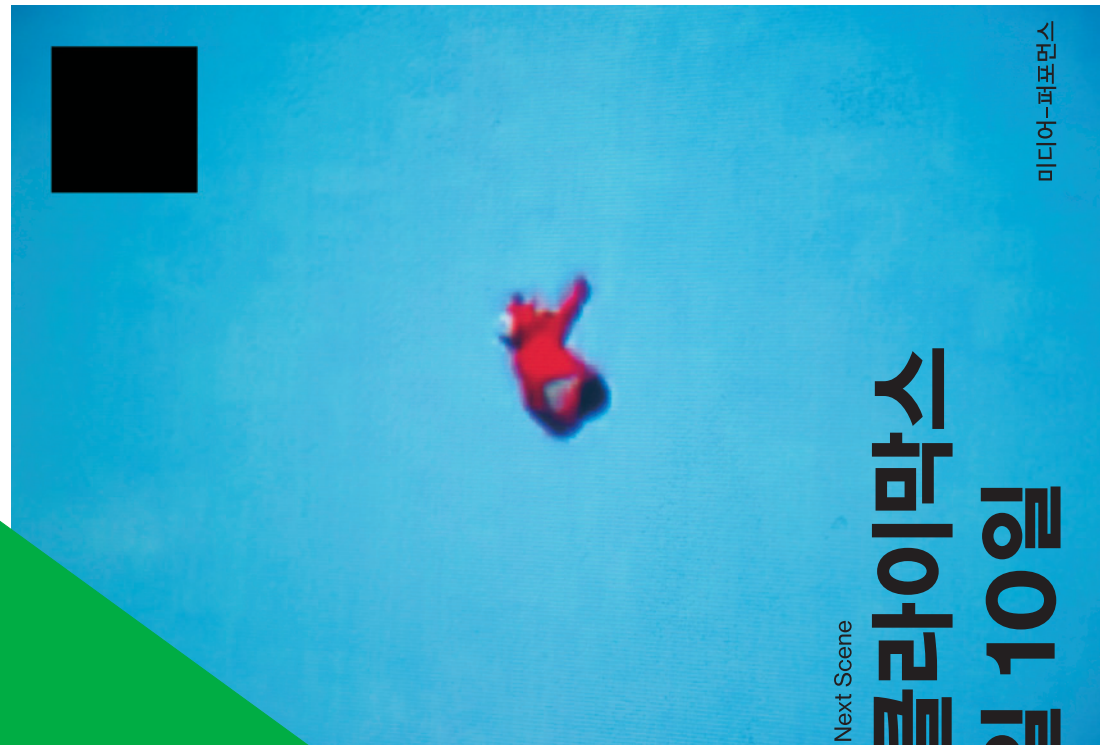
김지선의 무대는 저항을 위한 다짐 대신 무모한 오류들로 고무된다. 순조로운 여정과 이질적 모순이 혼재하는 현실 속에서 사유 자체는 무엇을 의미할까? 세계가 우리를 향해 걸어온 적도 떠난 적도 없다면 “세계는 존재하는 것일까?”

복합 5관 (소)
9.9 수: 8pm
9.10 목: 6pm
60분
20,000원

아티스트 토크
9.10 목: 공연 후

Conceived and directed by
Kim Jisun

Commissioned and produced by
Asia Culture Center Theater



Climax of the Next Scene

다음 신의 클라이막스
9월 9일 10일

미디어-퍼포먼스

카와구치 타카오 도쿄

시들어가는 꽃으로부터 부토의 비밀을, 삶의 비밀을 터득한 '부토의 꽃' 오노 카즈오에 있어서 살아있는 매 순간이 혁명이었다. 한동안 춤을 추지 않았던 오노에게 찾아온 새로운 영감은 스페인 댄스의 선구자인 안토니아 메르세(Antonia Mercé)였다. 그것은 오노를 춤추게 했고, <아르헨티나 예찬(Admiring La Argentina)> (1977)이라는 작품이 되었다. 이 춤을 추는 동안 오노가 만드는 '형태'는 어느새 신명이 되었다.

그는 그녀의 춤을 추었던 건가? 그녀를 위해 추었던 건가?
그녀와 함께 추었던 건가?

오노의 춤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카와구치 타카오는 비디오 기록으로부터 이제는 고인이 된 그의 정신을, 아니 '형태'를 복제한다. 오노의 '춤'을 '외양'만으로 모사하며 <아르헨티나 예찬>을 '재연'한다.

'정신'을 배제한 '형태'의 모사는 어쩌면 가장 '오노'스럽지 않은 방법론이다. 내면과 형태의 문제야말로 부토를 이끈 생명력이었다. 그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춤에 대한 본질적 질문으로의 회귀다. 춤의 궁극적 동기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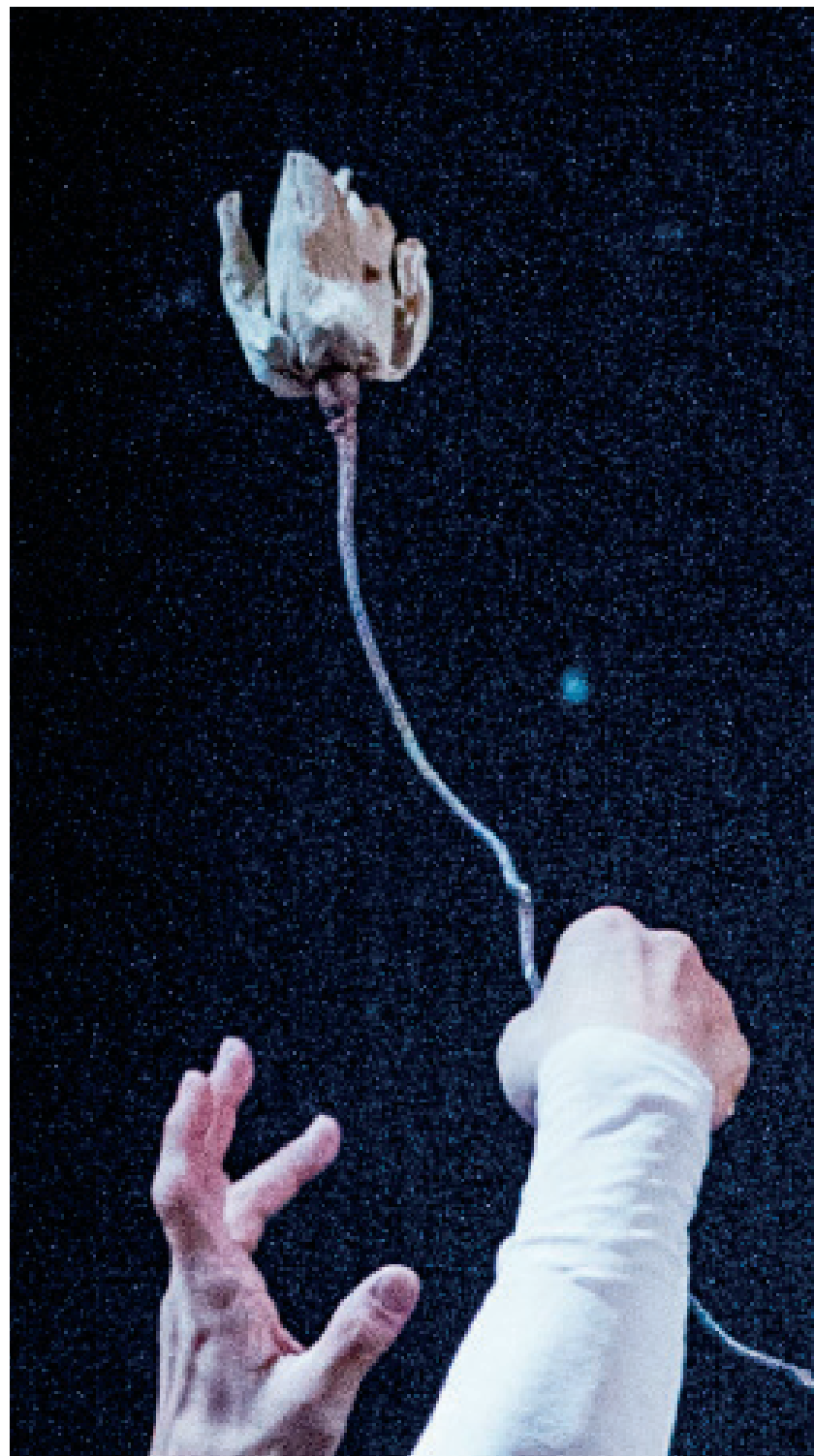
이 춤을 추는 동안 카와구치가 만드는 '형태'는 어느새 신명이 된다. 영혼 없던 형태에 '내면'이 부여되는가 하면, 어느새 다시 흐트러지기도 한다. 죽음과 재현의 간극 속에서 카와구치의 몸짓은 형태와 내면 사이에서 격렬히 진동한다. 오노 카즈오에 '관한(about)' 춤은 오노 카즈오 곁에서 '서성대는(about)' 중간적 제의가 된다.

카와구치는 오노의 춤을 추는 건가? 그를 위해 추는 건가?
그와 함께 추는 건가?

극장 오픈홀
9.7 월, 9.8 화: 8pm
70분
30,000원

아티스트 토크
9.8 화: 공연 후

Concept, direction and performance: Kawaguchi Takao • choreography: Ohno Kazuo, Hijikata Tatsumi • dramaturge and visual: Iina Naoto • lighting design: Nakayama Nami • sound design: Coda Noriaki • costumes: Kitamura Noriko • archive materials courtesy of Kazuo Ohno Dance Studio, Canta Ltd.



About Kazuo Ohno

오노 카즈오에 관하여 9월 7일 8pm

찬드랄레카 체나이

1928년 출생, 법을 전공하고 남부 전통춤 바라타나트얌(Bharata-natyam)을 전수받은 찬드랄레카는 정형화된 전람용 무용이 아닌 무용수 자신의 신체에 집중하는 방법론을 개발, 인도 현대무용의 기초를 다졌다. 신을 위한 춤이 아닌, 신체를 위한 춤. 이 과정에서 그가 모더니즘의 단초로 삼은 것은 요가, 칼라리파야투 등 '전통'이었다.

전통과 모더니즘은 어떻게 신체를 재편성하는가? 추모 10주년을 앞둔 찬드랄레카의 유작이기도 한 <신체>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주제로 하는 삼부작의 마지막 작품으로, 무용수의 절대적인 신체적 집중을 기반으로 신체가 갖는 개념과 물성으로서의 중첩적 존립을 현현시킨다. 그것은 무대에 가시화될 수 없는 에너지의 흐름의 관능적인 현전이자, 관객의 감각을 재편성하기 위한 제의적 질문이다.

찬드랄레카에 있어서 신체는 소우주이면서 또한 정치적 실체다. 여성을 억압한 국가권력에 투쟁했던 그의 삶 자체가 그러했듯, 여성적 신체는 정치적 영역에 놓이는 것만으로 이미 정치화된다.

극장 1-1
9.8 화, 9.9 수: 9pm
80분
30,000원

아티스트 토크
9.9 수: 공연 후

Conceived and choreographed by:
Chandralekha • performer: Tishani
Doshi and Shaji John • music:
The Gundecha Brothers • lighting
and management: Sadanand Menon
• with the support of INKO Center

여
마-



Sharira

신체
9월 8일 9pm

원구경극단 베이징

“오늘을 위해 전통을 활용하라. 중국을 위해 서구를 활용하라.”
마오쩌둥 전서에 명시된 예술론은 새로운 창작행위를 위한 이념적
원론이자 구체적 방법론이었다. 베이징 경극에 혁명 주제를 결합한
‘모범극’은 문화혁명과 모더니즘이 낳은 1960년대의 독특한 역사적
산물이다.

특히 <홍등기>는 ‘모범극’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극 중 생활 양상,
인물 캐릭터, 사상에서 중국의 근대화 과정을 엿볼 수 있어 전통
경극이 어떻게 현대로 계승되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준다.

중일전쟁 시기를 배경으로 한 <홍등기>는 극 중 가족 삼대의 구성
인물로 등장하는 리위허(李玉和)의 어머니, 리위허, 리티에메이
(李鐵梅)의 캐릭터가 주축이며, 세대를 아우르는 아름다운 노랫가락이
그 특징이다. <홍등기>의 창작과 리허설에 중국국립경극원 최고의
창작진과 배우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이 작품은 극단 내 원로
예술가들의 집단지성의 상징이 되었다.

이념은 형식과 내용의 견고한 결합을 지탱한다. 중국 최고의
가수들은 놀라운 음색으로 영웅과 승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념과
예술, 역사와 서사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어떤 해안을 가질 수 있는가?

극장 1
9.11 금, 9.12 토: 8pm
120분
R: 50,000원
S: 30,000원

아티스트 토크
9.12 토: 공연 후

Li Yuhe: Zhang Haoyang • Grandma
Li: Bi Xiaoyang • Li Tiemei: Zhang
Yixin • Hatoyama: Li Xiaowei • the
man sharpening a knife: Wang Libo •
Wang Lianju: Zhang Xiaoqing • Tian
Huilian: Xiao Tian • aunt Tian: Tan
Xiaoling • the messenger: Jin Zhiqi •
Hou Xianbu: Ma Lei • the man
defrauding messengers: Yang Chao
• the corporal: Jin Xing • drum: Li
Zhonghua • Jinghu player: Zhao
Jianhua • stage manager: Yin
Songtao • subtitles: Yang Meiqin •
accompanied by: the Orchestra of
the Troupe Two of China National
Peking Opera Company • stage
production: Stage Art Center of
China National Peking Opera
Company

가
짜
머



Legend of the Red Lantern

홍등기
9월 11일 12일

예술극장 제작,
월드 프리미어

다큐멘터리 감독 자오량은 두 편의 설치작품과 두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이루어진 작은 회고전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 이면의 중국의
현실을 직시한다. 문화혁명으로부터 자유주의로 이어지는 급속한
변화 속에서 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역사적 반추다.

극장 1-1
9.11 금-9.12 토: 7:30pm

극장 오픈홀
9.13 일-9.17 목: 2pm-자정

〈동풍과 서풍〉(2015)
"동풍과 서풍이 서로
엮치락뒤치락한다"는 마오쩌둥의
유명한 말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대립을 빗대었던 기존의 맥락을 넘어
오늘날 어떤 의미를 떠올리는가?
혁명오페라 〈홍등〉의 모티브를 재 활용한
영상 트립틱(triptych)은 관람객의
현재와 역사적 맥락을 '충돌'시킨다.

5'00"(approx.), 16:9, color, sound,
three-channel video installation •
commissioned and produced by
Asia Culture Center Theater

〈검은 얼굴, 하얀 얼굴〉(2014)
석탄으로 까맣게 뒤덮인 탄광 인부의
얼굴과 석회가루로 하얗게 뒤덮인 석회
공장 인부의 얼굴이 충돌하여 그 표피
너머의 현실을 드러낸다. 자본의 흐름과
에너지 소비, 환경, 사회계층에 걸친 여러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중국의
현실.

10'00", 16:9, color, sound,
three-channel video installation •
commissioned and produced by
Asia Culture Center Theater

극장 1-1
9.10 목: 10pm
95분

〈베헤모스〉(2015)
〈검은 얼굴, 하얀 얼굴〉의 배경이 되는
탄광에서 석탄 채광을 위해 동원되고
있는 몽골리아 내륙의 소수민족을
초상으로 그린다. 이는 오늘날 중국을
설명하는 단상이자,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성어린 자화상이기도 하다.

Directed by Zhao Liang • producer:
Sylvie Blum • Arte & INA present, a
Zhao Liang Images co-production •
with the support of IDFA Bertha
Fund, Hong Kong Asia Film Finan-
cing Forum, Asian Cinema Fund •
with the participation of YLE, Radio
Télévision Suisse, Centre National
de la Cinématographie et de l'Image
animée • cinematographer: Zhao
Liang • editor: Fabrice Rouaud • field
production manager: Hu Mengchu

극장 1-1
9.13 일: 10pm
133분

〈고소〉(2009)
베이징 남부역 근처의 고발원 주변에는
지역 당국의 부당한 행위를 고소하기
위해 중국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다. 땅을 빼앗긴 농부, 공장 파산으로
실직한 노동자, 자연재해로 집을 잃고도
보상받지 못한 이재민 등 갖가지 사연을
지닌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정의'를
구한다. 자오량 감독은 1996년부터
10년 넘게 그들과 동행하며, 허사로
돌아가곤 하는 아픈 투쟁을 카메라에
담았다.

Directed by Zhao Liang • producer:
Sylvie Blum • production companies:
Arte & INA, Zhao Liang Images •
with the support of: Three Shadows,
BBC Storyville, Centre National de
la Cinématographie (CNC), Radio
Télévision Belge Francophone
(RTBF), Télévision Suisse-Romande
(TSR), YLE TV1 • cinematographer:
Zhao Liang • editors: Bruno Barwise,
Zhao Liang, Shun Zi

무료 입장

Zhao Liang Project

자오량 프로젝트 9월 10-17일

영상 컬렉션 [p.36]
영상 [p.37]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9.10 목, 9.11 금: 8pm
100분
R: 50,000원
S: 30,000원

아티스트 토크
9.11 금: 공연 후

브렛 베일리 케이포타운



2차대전 이후 가장 큰 인명피해를 가져온 정치적 사건이 일어난 곳은 콩고민주공화국(DRC)이다. 1994년부터 5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5백만 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고, 부정부패와 인권유린, 국토의 황폐화는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있다.

인종과 권력의 불편한 문제를 불편한 적나라함으로 직시하는 브렛 베일리는 콩고민주공화국의 현실을 직시하기 위한 연극적 장치로서 베르디의 오페라를 활용한다.

“〈맥베스〉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사회에서의 부패, 살상, 잔혹성과 탐욕을 그린다. 아프리카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국제 미디어에서 콩고민주공화국의 상황이 이토록 작은 공간만을 허락받는다는 사실이 놀랍다. 나는 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책임감으로 받아들인다.”

혼란과 비극의 단초는 이동전화기나 노트북 컴퓨터에 사용되는 천연자원이다. 이른바 ‘분쟁광물’로 규정된 자원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해당국만의 것이 아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작가인 베일리는 이탈리아 작곡가 파브리치오 카솔(Fabrizio Cassol),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오페라 가수들, 구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음악가들이 뭉친 ‘노 보더즈(No Borders)’ 오케스트라와 협업을 하며 한 국가의 ‘비극’을 국제적 맥락에서 재고한다.

Conceived, designed and directed by Brett Bailey • music by Fabrizio Cassol, adapted from Verdi's Macbeth • conducted by Premil Petrovic • lighting design by Felice Ross • choreographed by Natalie Fisher • produced by Barbara Mathers

Macbeth: Owen Metsileng • Lady Macbeth: Nobulumko Mngxekeza • Banquo: Otto Maldi • chorus: Sandile Kamle, Jacqueline Manciya, Monde Masimini, Siphesihle Mdena, Bulelani Madondile, Philisa Sibeko, Thomakazi Holland

No Borders Orchestra: Stanko Madic (1st violin), Jelena Dimitrijevic, (2nd violin), Sasa Mirkovic (viola), Vinko Rucner (cello), Ilin-Dime Dimovski (double bass), Jasna Nadles (flute), Nenad Nesic (clarinet), Milos Dopsaj (bassoon), Nenad Markovic (trumpet), Viktor Ilieski (trombone) • percussionists: Cherilee Adams, Dylan Tabisher

Producer and managing director: Barbara Mathers • technical manager: Miguel Munoz • company manager: Catherine Henegan • stage manager: Pule Sethlako • AV engineer and technical assistant: Carlo Thompson • re-lighter: Tal Bitton • sound engineer: Pierre-Olivier Boulant • video illustration and animation: Roger Williams • photographs projected during the opera: Marcus Bleasdale/VII & Cedric Gerbehaye • subtitle text: Brett Bailey • props: Cristina Domenica Salvoldi • costume coordinator: Penny Simpson • administrator and production assistant: Helena Erasmus • copyist: Stephane Payen • publicity photographs: Morne Van Zyl & Brett Bailey

International producers: Frans Brood Productions, UK Arts International and Arts Projects Australia • EU Cultural Fund co-producers: KFDA/KVS, Wiener Festwochen, Theaterformen Festival, The Barbican and La Ferme du Buisson / Festival d'Automne à Paris • with the support of the Culture Programme of the European Union

Macbeth

맥베스 9월 10일 11일

유럽 제국주의의 역사에서 비서구인의 신체는 벗겨지고 전람되고 착취되고 농락당했다. 그 노골적인 관습이 사라진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아니, 오늘날 그것이 진정으로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와는 별개의 일일까?

브렛 베일리는 이 켄고려운 역사를 직시해야 할 필요성을 직시한다. 그 방법론은 켄고려운 그 자체를 직면하는 것이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거북하고 불편한 과정이다. 베일리 자신도 그가 불러일으키는 불편함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럼에도 그가 이 프로젝트를 강행하는 것은 단지 과거에 대한 반추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오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베일리는 '타자'라는 개념이 비단 탈식민담론의 이론적 개념이 아님을 공고히 한다.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관객은 역사라는 현장에 던져진다. 그것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생한 역사다. 그 어떤 개인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5·18민주평화기념관

컨퍼런스홀

9.11 금: 2pm-9:30*pm

9.12 토: 2:20pm-10*pm

9.13 일: 정오-10*pm

[*마지막 입장 시간]

투어 1회 20분

30,000원

Concept, design and direction: Brett Bailey • managing director: Barbara Mathers • technical manager: Colin Legras • stage manager: Berthe Tanwo Njole • company administrator: Helena Erasmus • choral songs arranged by Marcellinus Swartbooi • choir from Windhoek, Namibia: William Mouers, Chris Nekongo, Melvin Dupont, Avril Nuuyoma • performers: Milton De Monteiro Lopes, Alexandre Eric Fandard, Alban Mbossoro, Patrick Fodjo Simo, Laetitia Lalle Bi Benie, Guillaume Mivekannin, Anne Moraa, Leon Otu, Stella Odunlami, Knicole Verhoeven, Bbosa Deogratius, Constance Naa Nuerkie Noi

브렛 베일리 케이포타운

19세 미만
관람 불가

퍼포먼스-책

Exhibit B

B 전시

9월 11일 12일 13일



예술극장 제작,
월드 프리미어

극장 2
9.12 토, 9.13 일: 8pm
70분
R: 50,000원
S: 30,000원

Sung Hwan Kim, David Michael
DiGregorio, Lisa Lightbody, Andreas
Harder, Michele Piazzi, Igor Kretzu,
Hyoduck Hwang, Sungho Choi,
Eunah Park, Byungjun Kwon, Robin
Watkins, Alex Head, Yujin Jung,
Sung Yoon Kim, Jae Soon Jang

Executive producer: cheeks do coy,
LLC • commissioned and produced
by Asia Culture Center Theater

“피나는 노력으로 한>은 어떤 여자가 알던 남자의 삶을 그린 일종의 전기이고 조국(祖國)이라는 말에 대한 어렵듯한 단상에서 비롯한다. 이 전기의 시발점은 코트 아래에 여자가 입은 나뭇대로 화려한 옷에 있다. 아니면 밤에 많은 손가락을 마주 문지르면 나는 부슬비 소리에 있다. 등 뒤로 문이 닫히면, 여자가 들어선 문 안의 아랍 음악 소리가 빗소리를 잠식한다. 외방(外邦)에서 온 사내는 여자에게 다가가 자기 허가 아닌, 여자 허로 말을 건다. 사내 허는 타고난 섯조각같이 다곤고, 좀 더 시켜멀고 차다. 여자 허는 우리들처럼 무르고 축축하다. 여자는 몸이 태어나기 전 이름을 지냈다. 딱 맞는 가운같은 이름에 몸을 끼운다. 이 장면이 더 이상 다음 장면으로는 부연되지 않는 이 전기의 시작이다.”

김성환은 작업에서 다양한 시적, 영화적 장치들을 통해 치환을 이용한다. 이 작품에서는 인물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한 인물과 음악적 화음, 조명, 또는 세트 사이에서도 치환이 일어난다. 데이비드 마이클 디그레고리오(David Michael DiGregorio)의 음악 작곡과 나란히 전개된 이 작품은 영화, 라디오, 노래, 그리고 다양한 연극적 요소의 조율된 배열 사이를 넘나든다.

다
하
이

김성환 / 데이비드 마이클 디그레고리오 서울-뉴욕-베를린



A Woman Whose Head Came Out Before Her N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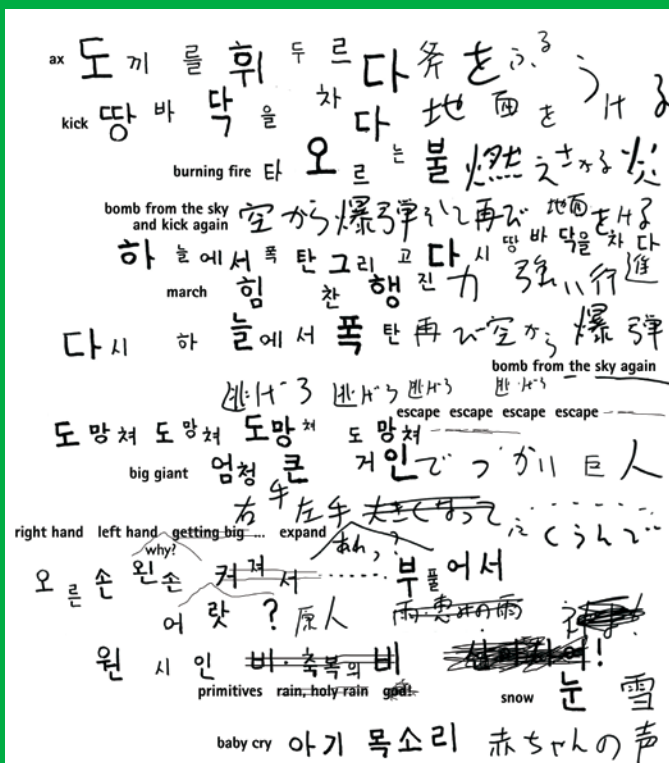
한 피나는 노력으로 9월 12일 13일

야마시타 잔코토

극장 0
9.11 금: 6pm
9.12 토: 4pm
40분
30,000원

아티스트 토크
9.12 토: 공연 후

Choreography and dance: Zan
Yamashita • stage design: Takuya
Kamliike • stage management: Shuji
Hamamura • lighting design: Kazuya
Yoshida • sound design: Tomoyo
Okumura



Daikoushin

대행진
9월 11일 12일

쓰레기 더미와 망가진 철로. 기억을 표류하듯 무대를 오가는 야마시타 잔은 파편화된 말들을 두서없이 내뱉으면서 어렵풋한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쓰레기처럼 조각나고 방치된 언어는 미장센 너머의 어떤 거대한 사건을 그려나간다. 기억과 상상을 관통하는 어떤 원초적인 자연재해다. 그 도래는 느리지만 어김없다.

2차대전외의 외상을 간직하고 있는 타카마츠의 해안에서 설치작가 카미이케 타쿠야와의 2010년의 협업으로 시작했던 작품이 이제는 시간을 넘어 후쿠시마 사태에 대한 계시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야마시타가 소환하는 재난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 아닌 일상에 대한 자연의 부조리한 폭력으로 무한히 열려있다. 손에 닿을 듯한 일상은 어느 순간 지구적 현상이 되었다가, 다시 고스란히 자연으로 돌아간다. 재난이란 특정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어딘가에서는 늘 일어나고 있는 누군가의 일상인 것이다.

라야 마틴 마틴라

페드로 둥곡은 마르코스의 독재 체제에서 산악지대 부족들 간에 소통을 도모했던 통역사다. 그의 열혈적 성격과 지역 사회 내의 입지, 게릴라 운동의 참여, 그리고 때 이른 죽음은 그를 코르디에라 저항 세력의 영웅으로 등극시켰다.

라야 마틴은 둥곡의 죽음이 투쟁 속의 비장한 순국이 아닌 단순한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었음에 착안, 영웅이 제조되고 정치화되는 과정에 진술하고도 예리한 질문을 던진다. 둥곡과 교류했던 부족들을 찾아본바, 그들이 기억하는 반독재운동 세력은 균열되고 서로 충돌하는 모순체다. 살아있는 자들의 비애는 어떻게 역사의 재료가 되는가?

민주항쟁의 땅 광주에서 마틴은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비애'가 어떻게 정치적 변혁의 밑거름이 되는지 고찰한다. 결국 역사는 죽은 영웅이 아닌 살아남은 자들의 수행적 행위다. 연극이 그러하듯.

필리핀 젊은 영화 운동의 표상이 된 라야 마틴의 첫 공연무대는 열사를 묘사하는 대신 열사를 묘사하려는 영화제작팀들을 묘사한다. 그에 있어서 역사적, 정치적 담론에 대한 질문은 영화에 대한 비평적 성찰과 중첩된다. 현실과 재현의 관계에 대한 성찰.

ACT 스튜디오 2
9.12 토, 9.13 일: 6pm
120분
50,000원

아티스트 토크
9.13 일: 공연 후

Conceived by: Raya Martin, Antoine Thirion • directed by Raya Martin;
Producer: Armi Rae Cacanindin •
music and sound design: Teresa Barrozo • lighting design: Ninya Bedruz • production design:
Whammy Alcazaren and Thesa Tang • stage manager: JK Anicoche

Executive producer:
Cinematografica Films • commis-
sioned and produced by: Asia
Culture Center Theater



How He Died is Controversial

그의 죽음은 의문스럽다 9월 12일 13일

영화 역사의 가장 급진적인 ‘혁명가’, 아다치 마사오. 오시마 나기사, 와카마츠 코지와의 협업으로부터 시작, 정치의 문제를 충전된 성적 에너지로 풀어냈던 ‘핑크무비’ 시대를 거쳐,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레바논에서의 28년간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영화’보다 파란만장한 그의 삶은 매 순간 자유를 위한 모색이었다.

그에 있어서 영화는 여전히 동시대의 사유를 ‘담는’ 매체가 아니라, 시대와 상호작용하는 행동적 매개다. 일본에 강제 호송된 이후 30년 만에 재개한 영화연출에서 그는 한때 포기했던 ‘영화를 통한 변혁’의 가능성을 재방문한다.

〈죄수/테러리스트〉(2007) 이후 8년 만의 연출작인 〈단식광대〉에서 그는 어쩌면 마지막 남은 저항의 수단을 탐구한다. 바로 ‘단식’이다. 프란츠 카프카의 ‘단식광대’로부터의 영감을 통해 아다치는 예술 행위의 가장 근원적인 기능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영화가 자본에 잠식된 오늘날, 아방가르드의 기본정신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을까?



Artist of Fasting

단식광대
9월 11일 12일

광주극장
9.11 금, 9.12 토: 10pm
90분
8,000원

아티스트 토크
9.12 토: 공연 후

Director: Adachi Masao • original story: Franz Kafka's *Ein Hungerkünstler* • screenplay: Adachi Masao, Onozawa Naruhiko • cinematography: Yamazaki Yutaka • production design: Kurokawa Toshimichi • line producer: Fujiwara Emiko • producers: Onozawa Naruhiko, Furukawa Yoshinisa, Sakaguchi Kazunao • production companies: Adachi-Gumi, Stance Company

Commissioned and co-produced by
Asia Culture Center Theater

수웬치 타이베이

아틀리에 1
9.13 일: 4pm
9.14 월: 8pm
55분
30,000원

아티스트 토크
9.14 월: 공연 후

Concept/choreographer/dancer:
Su Wen-Chi • text: Chou Man-Nung
• sound designer: Wang Fu-Jui •
stage designer: Wu Chi-Tsung •
lighting designer: Jan Maertens •
lighting assistants: Liu Po-Hsin,
Chang Yi-Chin • new media techni-
cal associate: Yang Chen-Han •
sound assistant: Lu Yi • production
associate: Sun Ping • stage man-
ager: Wu Ko-Yun • rehearsal/pro-
duction assistant: Hsieh An-An • still
photographers: Hsu Ping, Lee Hsin-
Che • commissioned by Dancing in
Autumn Festival, Taipei • flight sup-
ported by Fly Global Project

미디어와 무용의 접점에서 안무를 재규정하고 있는 타이완 출신의 안무가이자 무용수 수웬치에게 미디어 기술은 단지 미래를 여는 혁신이 아니라 과거를 재해석하도록 유도하는 매개이기도 하다.

자신의 무용단 '이랩(YiLab)'을 이끌며 무용의 가장 근원적이고도 진취적인 핵심을 탐색하고 있는 수웬치는 무대가 감각과 해석을 어떻게 연결시키는가에 대해 사색한다. 그 출발점은 신체에 대한, 공간에 대한 끝없는 집중이다.

〈지도 바깥〉에서 수웬치는 신체를 이해하기 위한 단서들을 신체의 외부에서 찾는다. 그가 고안한 무대 장치는 신체의 동작을 다른 차원으로의 배유와 횡단으로 재편성한다. 그는 공간과 감각을 대립시키고 음향을 통해 내면의 독백을 매핑한다. 지도화되지 않은 거친 현전 혹은 생명을 무대화하는 매개는 바로 신체이다.

Off the Map

지도 바깥
9월 13일 14일

19세 미만
관람 불가

여
마

아자데 샤미리 테헤란

테헤란에서 활동 중인 기자 출신의 연출가/극작가 아자데 샤미리가 이 소박하면서도 원대한 렉처 퍼포먼스에서 관망하는 것은 한 번도 직접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도시, 다마스커스다. 가깝고도 먼 도시에 대한 이방인의 관점은 주로 인터넷상의 사진들로 이루어진다. 시리아 현지에서 사는 인터넷 친구가 온라인으로 전송해주는 사진들은 미디어에 의해 부각된 '혁명자'로서의 이미지를 뛰어넘는 그 무엇가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하지만 사진 속의 역사적인 핵심에 다가갈수록 그 형상은 모호해지기만 한다. 디지털 이미지를 확대할수록 각진 픽셀만 커지는 것처럼. 더구나 온라인 가이드는 몇 마디 말만을 트위터에 남기고 '현실' 속으로 사라진다.

실재와 상상, 이미지와 독백이 중첩되는 미로 속에서 샤미리는 역동적인 현재형의 역사 속에 혼재된 복합적인 개인적 정서들을 끄집어낸다. 이웃 나라에 대한 걱정과 통찰은 모국인 이란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묵상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는 새로운 정치적 현실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불가능과 무기력을 직면하는 사적인 여정이기도 하다.

아틀리에 2
9.13 일: 4pm
9.14 월: 6pm
45분
20,000원

아티스트 토크
9.14 월: 공연 후

Concept and performance: Azade Shahmiri • video: Hamed Sahihi and Azade Shahmiri

렉처 퍼포먼스

Damascus
다마스커스
9월 13일 14일



탈가트 바탈로프 모스크바

타쉬켄트의 러시아 정착민 가정에서 태어난 탈가트 바탈로프는 러시아에서는 '우즈베크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러시아인'으로 여겨진다. 오늘날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를 가르는 국경은 구소련 붕괴 이후 생겨난 최근의 산물이다. 역사와 정치에 의해 끊임없이 재편성되어온 그 지리적 경계는 이들이 일상에서 맞서야 하는 언어, 종교, 인종과 같은 또 다른 경계들과 종종 충돌한다.

유쾌함으로 가득한 스탠드업 코메디 <우즈베크>에서 바탈로프는 국경의 허름한 틈새를 오갔던 자신의 '이주의 역사', 아니 '이주의 일상'을 펼친다. 그의 삶에서 '국적'이란 담배와 교환되는 물물거래 품목이기도 하고, 무서운 거리 폭력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것은 지혜와 혼란의 단초이자, 위험과 모순을 부르는 국가 시스템의 허울이기도 하다. 그의 일상적 일화들은 그 단순한 개념에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이 일화들은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이며, 정부에서 허용하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우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비거주민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오직 이 이야기들을 향해 웃는 것뿐이다.

결국 그가 '이방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은 자신 스스로다. 그가 내보이는, 불안하고 불완전한 '내면'의 국적은 어디일까? 21세기에 '국가'의 정의는 변해야 할까? 아니 애초부터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었을까?



아틀리에 1
9.16 수, 9.17 목: 9pm
100분
20,000원

아티스트 토크
9.17 목: 공연 후

Author, director, performed by:
Talgat Batalov • stage designer:
Svetlana Shuvaeva, Anna Selianina •
dramaturg: Ekaterina Bondarenko

Co-production: Joseph Beuys
Theatre, Sakharov Centre and Doc.
Theatre

Uzbek

우즈베크
9월 16일 17일

이이남 / 서현석 주광

비디오 아티스트 이이남은 국제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그의 작품들에서, 잘 알려진 동서양의 '고전 명화'들을 모티브로 삼아, 아니 통째로 가져와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삼성 스마트TV의 생명력이다. 그것은 현실에 현전할 수 없는 '마술적' 파격이자, '미술사적' 파행이다.

〈이이남: 세컨드 에디션〉에서 그가 '예술 작품화'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복제될 수 없는 무대 공간에 서서 이이남은 아티스트로서 갖는 고민과 욕망과 불안을 털어놓는다.

'명화'가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되듯, 이 디지털 다큐멘터리 연극에서 '실재'는 화려한 옷들을 입고 현현한다. 아니, 디지털 시대의 '실재'란 환영과 구분되지 않는 이미지에 불과할까? 아티스트의 '내면'은 고유한 원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극장 2
9.16 수, 9.17 목: 7:30pm
70분
R: 50,000원
S: 30,000원

아티스트 토크
9.17 목: 공연 후

Media art: Lee Leenam • director:
Seo Hyun-suk • director assistant:
Jang Sang-eun • video: Lee Leenam
Studio • technical: Joeun Media

Commissioned and produced by
Asia Culture Center Theater

Lee Leenam: Second Edition

이이남: 세컨드 에디션 9월 16일 17일

와엘 샤키 의 아랍산드리아 를 아래로

2010년, 이집트의 비디오 아티스트인 와엘 샤키는 십자군 원정의 연대기를 아랍의 관점에서 기록하는 야심 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카바레 십자군이라는 제목의 이 프로젝트는 세 장으로 구성된 비디오 설치로, 각 장은 세심하게 설계된 캐릭터, 음악, 무대장치를 통해 종교 전쟁의 폭력성을 그리고 있다. 비디오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캐릭터들을 시각화하는 샤키만의 방식이다. 그는 수공예로 만들어진 마리오네트 인형들의 입으로 침략자와 피해자 모두의 이야기를 한다.

이 프로젝트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장인 <카르발라의 비밀>은 이슬람교가 시아파와 수니파로 분리되는 시발점인 카르발라의 전쟁을 다루고 있으며, 이어서 4차 십자군 원정에서 그리스정교와 가톨릭교 간의 존재했던 깊은 골을 그린다. 샤키는 이 비디오를 위해 200개가 넘는 무라노 유리 마리오네트 인형과 조각을 제작했다. 동물의 형체를 하거나, 일그러진 형태를 띤 이 유리 인형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인류의 연약함과 전쟁의 그로테스크한 잔혹성이다.

극장 1-1
9.18 금, 9.19 토, 9.20 일:
10pm-자정
120분
8,000원

A film by Wael Shawky • director of photography: Nashaat Nazmi • editor: Tamer Nady Ton • sound: Solo Sound Studio • music: Samir Nabil • place of production: Egypt

20
80

Cabaret Crusades – The Secrets of Karbala

카바레 십자군—카르발라의 비밀
9월 18일 19일 20일

극장 1
9.19 토, 9.20 일: 6pm
65분
50,000원

아티스트 토크
9.20 일: 공연 후

Script, directions: Ho Tzu Nyen • set conceptualization: Ho Tzu Nyen, Andy Lim • set realization: Andy Lim, Jed Lim • lighting design: Andy Lim • sound design: Jeffrey Yue • performance: Bani Haykal, Hiro Machida, Rizman Putra, Sim Pern Yiau • composition (samples and electronics): Yasuhiro Morinaga • music (percussions, electric guitar, acoustic bass, clarinets): Bani Haykal • videography: Russell Adam Morton • production: Ho Tzu Nyen, Stephanie Goh, Yap Seok Hui

Co-commissioned by Esplanade – Theatres on the Bay, Asia Culture Center Theater, Carriageworks, Wiener Festwochen • with the support of: National Arts Council, Singapore

호추니엔 싱가포르

말레이에서 호랑이는 인간 영혼의 표상이다. 고대부터 조상들은 호랑이로 현현하여 후세와 대화했고, 무당들은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넘기 위해 호랑이로 변신하기도 했다. 근대화 과정에서 숲이 파괴되며 말레이의 호랑이는 (물리적으로는) 멸종위기를 맞았지만, 끊임없이 다른 형태로 변신하며 역사를 직조해왔다. '말레이 호랑이'라는 애칭의 일본 25사단 사단장으로서, 말레이 공산당의 표상으로서, 호랑이는 계속해서 되돌아왔다.

역사적 텍스트나 물건을 원재료로 삼아 영화, 비디오, 퍼포먼스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는 호추니엔의 신작은 신화와 역사, 구전동화와 기억 속에서 출몰하는 호랑이의 발자취들을 수집한다. <만 마리의 호랑이>는 20세기와 오늘에 산재하는 호랑이의 흔적들을 재조합한다. 그것은 곧 인간 정신에 대한 고찰이기도 하다. 역사를 지배해온 폭력과 파괴, 공포와 파격에 관한 근원적 성찰.

어디서 억압이 시작되었는가? 혁명을 이끌었던 것은 누구인가? 오늘날 역사의 재현은 어떤 초자연적 힘을 집행하는가? 결국 호랑이 신화는 은유가 현실에 침투하는 이야기다.

Ten Thousand Tigers

만 마리의 호랑이 9월 19일 20일

오카다 토시키키 요코하마-도쿄

문법을 이탈하는 유아적 텍스트, 과장된 구어체, 안무된 반복적 몸짓 등 1997년 극단 '첼핏쉬'를 설립한 이후 오카다 토시키키가 발전시켜온 독특한 방법론은 후쿠시마 재난 이후 사회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짚어지며 또 다른 국면으로 펼쳐지고 있다.

〈3월의 닷새〉, 〈햏페퍼, 에어컨디션, 그리고 고별사〉, 〈현위차〉, 〈지면과 바닥〉 이후 한국에서 공연되는 다섯 번째 작품이자 예술극장이 제작하는 신작에서, 오카다는 한국과 일본을 같이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엉뚱하면서도 정확한 모티브를 탐색한다. 바로 야구다.

야구 규칙을 모르는 여자들,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 야구를 멀리하게 된 남자, 어쩌다 야구를 싫어하는 남자와 결혼하게 된 여성 야구팬 등 그가 그려내는 엉뚱한 캐리커처는 일본과 한국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접해 봤음직한 익숙한 인물상들이다. 실제와 환상을 오가는 '국민적' 기억과 사적인 추억들이 누적되면서 양국의 '야구 담론'은 스포츠 이상의 상징성을 향해 뻗어 나간다. 어쩌면 야구는 다른 주제에 접근하기 위한 '맥거핀'일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결국 미국이라는 커다란 존재에 직면하게 되겠지요. 우리 두 나라 중 어느 하나도 그 영향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나라.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 우리의 '위'에, '배후'에, '안'에 있고, 우리와 '함께' 있는, 미국. 이 커다란 영향력을 현재 우리의 상황과 관련지어 보는 일은 과연 불가능할까요?"

극장 1-1
9.19 토, 9.20 일: 8pm
80분
50,000원

아티스트 토크
9.20 일: 공연 후

Playwright/director: Okada Toshiaki • translating/interpreting: Lee Hongyie • performers: Lee Yoon Jae, Kang Cheong Im, Neji Pijin, Wi Sung Hee, Nozu Aoi • set design: Takamine Tadasu • costume: Fujitani Kyoko (FAIFAI) • dramaturge: Kanayama Sugatsu (Tokatsu Sports), Lee Hongyie • stage director: Suzuki Koro • sound designer: TBC • lighting director: Kito Ayumi • production manager: Ouki Tamiko (Precog)

Commissioned by Asia Culture Center Theater • production: Chelfitsch, Precog • co-produced by: Asia Culture Center Theater, Festival/Tokyo, Taipei Arts Festival • additional commissioning support provided by: Japan Society, Museum of Contemporary Art Chicago, The Clarice Smith Performing Arts Center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and Wexner Center for the Arts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 research and workshop supported by Doosan Arts Centre • cooperation: Kinosaki International Arts Center, Steep Slope Studio



야구에 축복을
9월 19일 20일

콘스탄틴 보고몰로프 모스크바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9.18 금, 9.19 토: 8pm
255분
R: 50,000원
S: 30,000원

이 공연은 자정 이후 종료합니다.

Stage director and author of the stage version: Konstantin Bogomolov • set designer: Larisa Lomakina • costume designer: Natalya Kanevskaya • lighting designer: Damir Ismagilov • music composer: Faustas Latenas • choreographer: Yuliya Kavetskaya • stage manager: Olga Roslyakova • production: Moscow Art Theatre of A. P. Chekhov (Artistic Director: Oleg Tabakov)

Dorian Gray: Sergey Chonishvili, Robert Turney • minister: Alexey Kravchenko, Ternova Gertrude • his wife: Darya Moroz • lord, chanson star: Igor Mirkurbanov • Mission Cheveley: Marina Zudina • Mabel, orphan: Pavel Chinarev • Tommy fastener: Pavel Vashchilin • papa and mama who bore killer: Alexander Semchev • Masha Sidorova: Roza Khairullina • Father Artemy: Maxim Matveev • Moloch, Telediva: Andrey Burkovsky • Soundlessly: Artem Panchyk • Invisible: Vladimir Panchyk • Olga (Rostov): Svetlana Kolpakova • Irina (Minsk): Yana Osipova • Masha (from Gzhel): Nadezhda Borisova • the boy in the eyes: Andrew Antipp, Vasily Nemirovich-Danchenko • the cast also involved Baron Tuzenbakh, Fedotik and Rode (shestéry) Last Russian intelligentsia

세기말적인 불안을 냉소로 풀어낸 오스카 와일드의 1895년 작 <이상적인 남편>은 오늘날 어떤 풍미를 품을 수 있을까? 러시아의 문제야 콘스탄틴 보고몰로프가 만들어내는 러시아 연극의 현주소는 풍부한 감성과 견고한 연출력, 그리고 그 재료가 되는 러시아의 용광로 같은 현 세태로 짜인다. 체호프와 파우스트가 결들여진, <이상적인 남편>에 대한 그의 해석은 “와일드를 무덤에서 살아나게 할 정도”로 원전에 파격적인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평가받았다.

주로 모스크바의 체호프 예술극장에서 공연되는 그의 연출작들이 최근 연이어 러시아에서 폭발적인 인기와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러시아의 오늘을 향한 날카로운 풍자의 비수 때문이다. 거침없고도 기묘한 그의 풍자는 두터운 통찰력으로 뭉쳐져 있다. 관객의 역할은 우선 대책 없이 웃는 것이다. 가차없는 배설은 어느 순간 예리한 사회적 통찰이 되어 뒤통수를 친다.

통렬한 해학은 화려하고도 탄탄한 내공 연기로써 지탱된다. 웃음은 일방적인 조롱에 멈추지 않고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을 동반하기도 한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새삼스러운 경이와 경악이 되어 공명한다.

An Ideal Husband - A Comedy

이상적인 남편
9월 18일 19일

19세 미만
관람 불가

광
공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테헤란

중세에 일어났던 카바라 전쟁은 아직도 이란인들의 가슴에 무한한 상상과 울분을 불러넣어 주는 피지배자들의 서사다. 그것은 오늘의 상처가 역사 속 비극에 투사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2003년 압바스 키아로스타미는 한 작은 마을의 오페라극장에서 카바라 전쟁을 재현하는 공연을 관람하는 청중의 모습을 담았다. <관람자들>이라는 제목의 이 영화에서 (통곡의 주간이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은 복장을 갖춘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 관객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에 거듭 동화되며 눈물을 흘치기도 하고, 즐겁게 수다를 떨기도 한다.

‘비디오 퍼포먼스’ <관람자들을 바라보기>는 세 개의 스크린을 통해 시선과 무대, 역사와 재현의 궤적을 보다 복잡한 장치로 재편성한다. 공연이 벌어지고 있는 무대를 바라보는 관람객들이 카메라의 시선에 포착된다. 여기에 그들과는 다를 수도 있는 문화적 배경의 관람객의 배유하는 시선이 추가되면서 역사 속의 전쟁은 진행형의 역동적인 입체경으로 거듭난다. 그것은 한 공연작품의 기록임을 넘어 다시 전쟁에 휩쓸린 이란의 오늘에 대한 정밀한 초상으로 다가온다.



아틀리에 1
9.18 금, 9.19 토, 9.20 일: 4pm
80분
8,000원

A project by Abbas Kiarostami •
promotion and diffusion: Kunsten-
festivaldesarts (Brussels) • the origi-
nal theatre project *Ta'ziyè* was pro-
duced by Teatro di Roma with the
support of Taormina Festival Art

Looking at Ta'ziyè (The Spectators)

관람자들을 바라보기
9월 18일 19일 20일

클로드 레지 파리-시즈오카

‘마스터’라는 수식어는 60여 편의 연출작에 걸쳐 정치와 내면의 접점 그리고 그 이면을 섬세히 탐구해온 클로드 레지를 말하기에는 무책임한 말이다.

90세에 연출한 신작 <내면>에서 그의 시선은 무대의 물성을 뚫고 보이지 않는 인간의 은밀한 어둠을 비춘다. 한 아이의 죽음을 단초로 펼쳐지는 극적 상황은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들며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무대에 드러낸다. 정적이면서도 알 수 없는 파장이 격렬하게 진동하는 미장센 속에서 언어와 적막은 무대라는 공간을 공유하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고자 하지 않는 존재의 이면을 꼬집어 낸다. 존재의 본질에 대한 확신이 무너질 때 드러나는 내면의 구멍.

레지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려는 묵묵한 시도는 상징주의 시인이자 극작가 모리스 마테를링크(Maurice Maeterlinck)와의 은밀하고도 충만한 대화이기도 하다. 마테를링크가 말하는 “어둠의 바다”는 평온한 삶을 동요시킨다. 레지에 있어서 그것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또 다른 공간”이다. 그의 삶에 대한 관점은 곧 그의 연출론이기도 하다.

“(죽음과 삶이라는) 상반되는 두 개의 힘이 계속해서 맞물려 결국에는 하나로 결합되어 새로운 힘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극도로 예민하면서도 끝없이 자유로우며, 광활하면서도 침묵에 충실한 그의 무대는 ‘내면’의 열린 지평선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에 있어서 연극은 “이해할 수 있는 것 너머의 세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다.



CGI 센터
9.18 금: 8pm
9.19 토: 2pm, 8pm
9.20 일: 8pm
90분
50,000원

아티스트 토크
9.20 일: 공연 후

Playwright: Maurice Maeterlinck • Japanese translation: Yoshiji Yokoyama • director: Claude Régy • assistant to the director: Alexandre Barry • set designer and technical director: Sallahdyn Khatir • original light design: Rémi Godfroy • light designer and engineer: Pierre Gaillardot • production manager: Bertrand Krill • French-Japanese interpreter and assistant to the director: Hiromi Asai • stage manager: Akiko Uchino • wardrobe: Makiko Tango

The old man: Soichiro Yoshiue • the stranger: Yoji Izumi • Marie: Asuka Fuse • Marthe: Miki Takii • the father: Tsuyoshi Kijima • the mother: Haruyo Suzuki • the two girls: Mana Yumii, TBD • the child: TBD • a peasant: Gentaro Shimofusa • crowd: Hiroko Matsuda, Yusuke Oba

Production: Shizuoka Performing Arts Center, Les Ateliers Contemporains • supported by the Institut Français, Paris, the Japan Foundation, Tokyo • co-production reprise 2014 Wiener Festwochen, Kunstenfestivaldesarts, Festival d'Automne à Paris, with the kind support of Institut Français (Théâtre Export), Paris, Van Cleef & Arpels, Paris

Les Ateliers Contemporains is a theater company supported by the French Ministry of Culture and of Communication

Interior

내면

9월 18일 19일 20일

팀 에첼스 세필드

어린이들은 어른들로부터 어떤 압력을 받으며 성장할까? 지난 30년 동안 연극의 혁신을 이끌어 온 팀 에첼스의 '포스트 엔터테인먼트'는 우리 모두의 성장 과정에 군림하는 수직적 권력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추어낸다. 바로 언어다.

광주의 8-14세의 퍼포머 16명으로 이루어진 코러스는 어른들의 언어가 자신들의 경험을 어떻게 각색하고 재편성하는지를 '공개'한다. 이제 무대 위에서 '언어'는 어린이들의 무기가 된다. 어른들의 명령, 훈계, 거짓말, 변명들에 숨은 언어적 논리가 낱말이 '분석'되면서 민낯의 감정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연극적' 긴장을 만드는 재료들은 익숙한 가족 내의 일상적, 정서적 동요들이다.

진솔하고도 기발한 이의제기는 유머와 통찰을 하나로 묶는다. 성인 관객에 있어서 그것은 세대를 넘는 소통이자, 자신 스스로와의 대화이기도 하다. 부모로서의 자신. 어린이로서의 자신.

연극의 가장 과감한 실험들로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온 '아방가르드 극단' 포스트 엔터테인먼트는 광주의 나이 어린 퍼포머들과 협업하며 한국적 동심의 불안하고도 유쾌한 국면들을 '정직하게' 우려낸다.

극장 2
9.19 토, 9.20 일: 2pm
50분
10,000원

아티스트 토크
9.20 일: 공연 후

Writer: Tim Etchells • produced by
Forced Entertainment • project director for Gwangju: Hester Chillingworth
• *That Night Follows Day* was originally commissioned and produced by Victoria (now Campo) in 2007 (www.timetchells.com)

This rehearsed reading is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young performers of Gwangju

That Night Follows Day - A Rehearsed Reading

밤이 낮이 된다는 것
9월 19일 20일



유럽페스티벌연합(EFA) ‘젊은 축제기획자를 위한 아틀리에’

EFA는 1952년 제네바에서 창립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 네트워크 중 하나로, 50여 개국 120여 개의 축제와 협회, 기관을 대표한다. EFA가 주최하고 페스티벌 아카데미가 주관하는 ‘젊은 축제기획자를 위한 아틀리에’는 축제 운영과 예술의 지식을 전수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차세대 공연예술 축제 기획자 45인이 일주일간 한데 모여 세계 유수 축제감독들과 함께 강연과 멘토링, 워크숍, 그룹 토론, 공연 관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www.thefestivalacademy.eu]

전남대학교 캠퍼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외
8.31 월-9.6 일

주관: 페스티벌 아카데미
(유럽페스티벌연합 이니셔티브)
공동주관: 전남대학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협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한프랑스문화원, 주한독일문화원,
영국문화원, 일본국제교류기금

현대공연예술네트워크(IETM) 광주 위성회의 & 서울 카라반

IETM은 500여 개의 공연예술 단체와 개인 회원으로 구성된 국제 비영리 네트워크로, 연중 정기 총회(봄/가을, 유럽 순회)와 위성회의·카라반(비정기적, 전 세계)을 개최한다. 광주 위성회의는 아시아와 유럽의 공연예술인들이 모여 아시아 예술의 동시대성을 사유하고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는 한편, 아시아 예술가 및 기획자와 교류한다. 한편 카라반은 서울의 문화예술 창작 공간과 환경을 방문하고, 공연예술 종사자들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www.ietm.org]

광주 9.7 월-9.9 수
서울 9.10 목-9.12 토

공동 주관: IETM,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서울문화재단

일본 프로듀서 네트워크(ON-PAM) 아시아 총회

ON-PAM은 일본 내 150여 명의 공연예술 기획자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있는 네트워크로, 문화정책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커뮤니티 기반활동 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컨템포러리 공연예술의 미래’, ‘문화예술 정책’, ‘공연예술과 커뮤니티’ 등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연간 심포지엄과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총회는 ON-PAM이 해외에서 개최하는 첫 번째 회의이며, ‘아시아 컨템포러리’를 비롯한 세 가지 주제를 둘러싼 강연 및 토크,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www.onpam.net]

국립아시아문화전당
9.9 수-9.11 금

공동주관: ON-PAM,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셰어드 스페이스(Shared Spaces) 총회

셰어드 스페이스는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기획자 30여 명으로 구성된 국제 컨템포러리 공연예술 네트워크다. 이들은 경제적 편차에 따른 지역별 창작 및 유통 불균형을 극복하고, 예술가와 기관 간 장기적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2014년 취르커 시어터 스펙타켈(Zurcher Theater Spektakel) 축제에 이어 2015년에는 예술극장 개관 축제 기간 중 셰어드 스페이스 총회가 개최되며 아시아와의 교류 확장을 탐색하고 논의한다. [www.kvs.be/en/shared-spaces]

국립아시아문화전당
9.12 토-9.14 월

공동주관: Shared Spaces,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Asian Contemporary, Now Jump!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은 아시아의 젊은 예술가와 기획자들이 한 데 모여 컨템포러리의 비전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한다.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15인의 미래 세대들은 예술극장 개관 페스티벌 기간 중 장르와 학풍, 관점과 문화의 경계들을 횡단하며 동시대 예술의 가능성을 탐구하게 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9.14 월-9.19 토

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컨템포러리 토크@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오픈홀

시간

9.5 토: 자정-2am

작가: 차이밍량,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 모더레이터: 정성일

아시아의 근대

9.11 금: 자정-2am

작가: 자오량, 카와구치 타카오 / 모더레이터: 사다난드 메논

역사 다시쓰기

9.12 토: 자정-2am

작가: 라야 마틴, 아자데 샴리 / 모더레이터: 마크 테

월경

9.19 토: 자정-2am

작가: 호추니엔, 요우미 / 모더레이터: 김남수

아시아 윈도우 프레젠테이션

페스티벌 센터

헬리 미나르티 <응시.투영.신화>

9.7 월: 11am

라야 마틴 <언도큐멘타>

9.8 화: 11am

요우미 <월경과 혼재>

9.9 수: 11am

타렉 아부 엘 페투 <시간의 빗장이 어긋나다>

9.10 목: 11am

장영규 <사라져가는 목소리들>

9.11 금: 11am

커뮤니티 윈도우 프레젠테이션

페스티벌 센터

9.17 목: 5pm

4편의 커뮤니티 윈도우 프로젝트가 소개됩니다.

(각 20분 소요)

예술감독

김성희

프로그래밍

드라마투르그: 막스 필립 아센브렌너

프로그래밍 어시스턴트:

김신우, 고유희

프로그래밍팀 코디네이터: 이정은

프로듀서

유병진, 신진영, 김정현, 임리원,

오진아, 박미선, 백보람, 박성호,

박은현, 최윤정

커뮤니케이션

팀장: 구효진

관객 개발: 최윤희, 배성림, 안성진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김보용

출판: 김양희

해외 커뮤니케이션: 김참슬

운영

팀장: 조정호

회계: 오수환, 윤한나

인사: 김태현

총무: 정상욱

계약: 김미경

티켓 마스터: 박서현

티켓 매니저: 이경민, 이정혜

기술

팀장: 김지명

무대: 변오영, 김장현, 신지혜

음향: 양필주, 나인권, 김성식, 박지연

조명: 이한준, 이순양, 나종덕, 이광득

텍스트 집필

서현석

통번역 및 자막 코디네이터

이경후

언론홍보

정혜민

대외협력

정종진

그래픽 디자인

슬기와 민

국제 자문

프리 라이젠, 로제 크리스트만

조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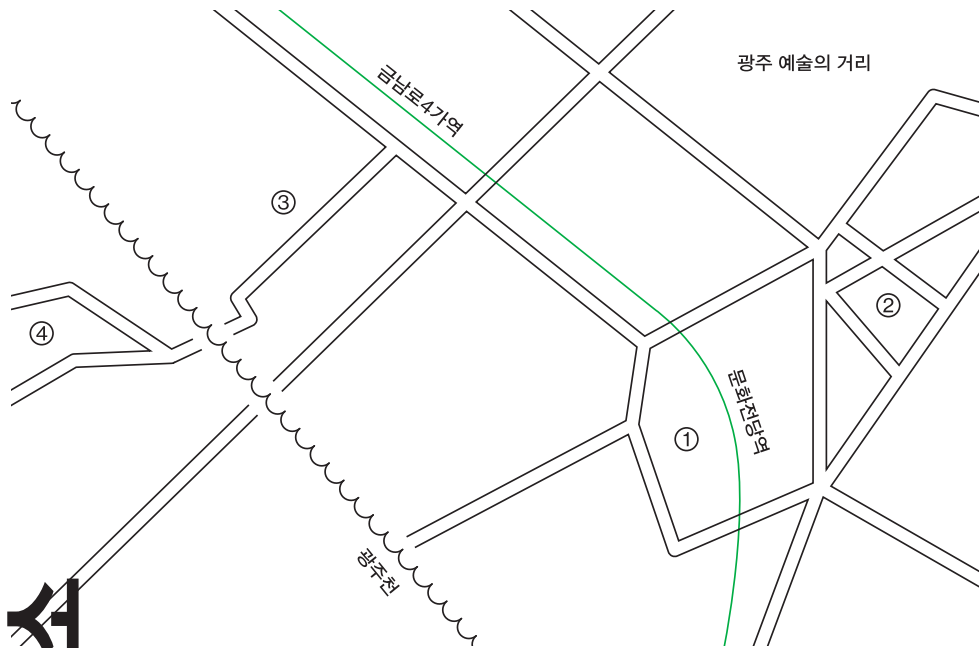
성용희

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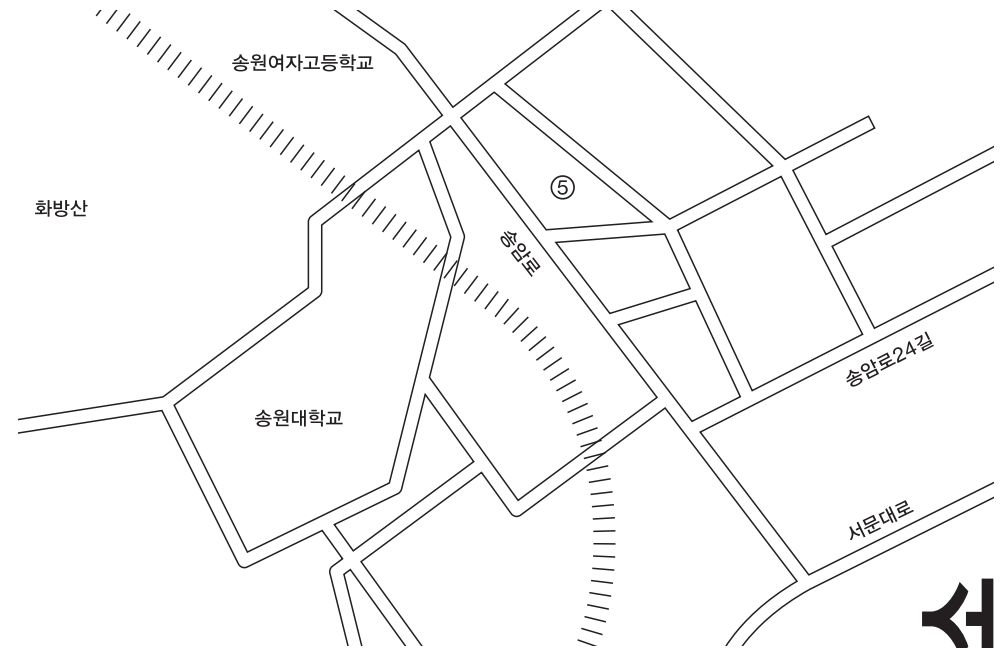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관

아시아문화개발원



-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1, 극장 1-1, 극장 2, 극장 오픈홀, 아틀리에 1, 아틀리에 2,
복합 5관, ACT 스튜디오 2, 5·18민주평화기념관 컨퍼런스홀
(구 전남도청 회의실)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T 062 410 3617
- ② 극장 0 (구 광주여고 체육관)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110번길 10
- ③ 광주극장
광주광역시 동구 중장로5가 62
T 062 224 5858
- ④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2
T 062 670 7933



- ⑤ CGI 센터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373-3
T 062 610 2400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약 8km 내외 위치

가격: 원	작가	작품
무료	사카구치 교헤	제로 리:퍼블릭
50,000	차이밍량	당나라 승려
10,000	차이밍량	떠돌이개 in 광주
무료	차이밍량	차이밍량의 영화관
8,000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찬란함의 무덤
50,000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열병의 방
30,000	마크 테	발링회담
50,000	리카르도 바르티스	바보기계
50,000	로메오 카스텔루치	봄의 제전
무료	아라야 라스잠리안숙	옴마유 시
50,000	마를레네 몬테이로 프레이타스	상아와 살에 관하여
20,000	김지선	다음 신의 클라이막스
30,000	카와구치 타카오	오노 카즈오에 관하여
30,000	찬드랄레카	신체
R 50,000 / S 30,000	중국국립경극원	홍등기
무료	자오량	동풍과 서풍 + 검은 얼굴, 하얀 얼굴
무료	자오량	베헤모스 + 고소
R 50,000 / S 30,000	브렛 베일리	맥베스
30,000	브렛 베일리	B 전시
R 50,000 / S 30,000	김성환/데이비드 마이클 디그레고리오	피나는 노력으로 한
30,000	야마시타 잔	대행진
50,000	라야 마틴	그의 죽음은 의문스럽다
8,000	아다치 마사오	단식광대
30,000	수웬치	지도 바깥
20,000	아자데 샤미리	다마스쿠스
20,000	탈가트 바탈로프	우즈벡
R 50,000 / S 30,000	이이남/서현석	이이남: 세컨드 에디션
8,000	와엘 샤키	카바레 십자군
50,000	호추니엔	만 마리의 호랑이
50,000	오카다 토시키	야구에 축복을
R 50,000 / S 30,000	콘스탄틴 보고몰로프	이상적인 남편
8,000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관람자들을 바라보기
50,000	클로드 레지	내면
10,000	팀 에첼스	밤이 낮이 된다는 것

예매처
[인터넷 예매]
www.asianartstheatre.org
[전화 예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매표소
T 062 410 3617

티켓 문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매표소
T 062 410 3617
at-ticket@iacd.com
평일 10am-5pm

티켓 할인	
청소년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신분증, 청소년증,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합니다)	30%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로우대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카드, 경로우대증을 제시합니다: 1인 2매)	50%
조기예매 (공연 초기 예매 시: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30%
자유 패키지	
3작품 이상 예매 시	40%
5작품 이상 예매 시	50%
예술인 (예술인패스카드, 예술활동 증명 자료를 제시합니다)	30%
.. 티켓 권 중 별 할인과 할인 쿠폰의 중복 할인은 불가능합니다.	
.. 본 항목은 현장에서 할인 가능합니다.	
.. 공연 당일 현장 티켓 발권 시 해당 증빙자료를 지참해 주셔야 티켓 수령이 가능합니다. (증빙 미 지참 시 차액을 지불합니다.)	

장소	작가	작품
극장 0 (구 광주여고 체육관)	리카르도 바르티스	바보기계
	아마시타 잔	대행진
극장 1	차이밍량	당나라 승려
	중국국립경극원	홍등기
	호추니엔	만 마리의 호랑이
극장 1-1	찬드랄레카	신체
	자오량	베헤모스
	자오량	동풍과 서풍 + 검은 얼굴, 하얀 얼굴
	자오량	고소
	와엘 샤키	카바레 십자군
	오카다 토시키	야구에 축복을
	아피찡퐁 위라세타쿤	열병의 방
극장 2	김성환/데이비드 마이클 디그레고리오	피나는 노력으로 한
	이이남/서현석	이이남: 세컨드 에디션
	팀 에첼스	밤이 낮이 된다는 것
극장 오픈홀	차이밍량	떠돌이개 in 광주
	카와구치 타카오	오노 카즈오에 관하여
	자오량	동풍과 서풍 + 검은 얼굴, 하얀 얼굴
아틀리에 1	마크 테	발링회담
	수웬치	지도 바깥
	탈가트 바탈로프	우즈벡
아틀리에 2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관람자들을 바라보기
	아자데 샤미리	다마스커스
	아라야 라스잠리안숙	옴마유 시
복합 5관	김지선	다음 신의 클라이막스
	라야 마틴	그의 죽음은 의문스럽다
	로메오 카스텔루치	봄의 제전
ACT 스튜디오 2	클로드 레지	내면
	마를레네 몬테이로 프레이타스	상아와 살에 관하여
	브렛 베일리	맥베스
CGI 센터	콘스탄틴 보고몰로프	이상적인 남편
	차이밍량	떠돌이개 in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브렛 베일리	B 전시
	아피찡퐁 위라세타쿤	찬란함의 무덤
	아다치 마사오	단식광대
5·18민주평화기념관 컨퍼런스홀	차이밍량	차이밍량의 영화관
	사카구치 교헤	제로 리:퍼블릭

9.4 금	9.5 토	9.6 일	9.7 월	9.8 화	9.9 수	9.10 목	9.11 금	9.12 토	9.13 일	9.14 월	9.15 화	9.16 수	9.17 목	9.18 금	9.19 토	9.20 일	9.21 월
	8pm							6pm	4pm								
	7pm							8pm							6pm		
					9pm												
						10pm											
							7:30pm										
									10pm								
														10pm-자정			
															8pm		
		5pm, 8pm, 10pm															
										8pm							
												7:30pm					
															2pm		
			4pm-8pm														
			8pm														
													2pm-자정				
		3pm	6pm														
										4pm	8pm						
												9pm					
														4pm			
										4pm	6pm						
		2pm-8pm	4pm-8pm														
					8pm	6pm											
							6pm										
		정오, 5:30pm															
			3pm	6pm										8pm	2pm, 8pm	8pm	
								8pm									
															8pm		
		10pm-10am															
									2pm-9:30pm	2:20pm-10pm	정오-10pm						
				8pm													
								10pm									
								2pm-6pm									

2015년 9월

